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미시세계 연구 제안

박 선 아<sup>1)</sup>      류 호 제<sup>†</sup>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층적 노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시적 연구 접근 방법이 탄소중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탄소중립 정책 목표와 미시적 연구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심리과학, 커뮤니케이션학, 환경정책, 환경사회학 등 인접분야에 걸쳐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서술적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각 분야별 고유한 특성이 발견되었다. 심리과학 분야는 개인의 내적 요인, 인식, 행동 의도에 중점을 두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미디어 효과가 결합된 실용적 주제들을 다루었다. 환경정책 분야의 미시적 접근에서는 환경교육, 정책 수용성, 대규모 인식조사 및 집단별 인식연구가 주요 동향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미시적 연구의 특성을 인지적, 행동적, 정치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심리과학 연구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상호 보완하는 의미에서, 일상적 인간 행동들을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실천이론을 소개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다학제간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미시적 연구의 실천적, 이론적 확장 노력은 탄소중립 규범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고 좁혀나갈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한다.

주요어 : 탄소중립, 기후커뮤니케이션, 환경정책, 서술적 문헌고찰, 사회적 실천이론

1) 제1저자 : 박선아, 홍콩과학기술대(광저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전공 조교수

E-mail: seonapark@hkust-gz.edu.cn

† 교신저자 : 류호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5646, E-mail: kjkns@snu.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기후위기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중대하고 복합적인 도전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 환경과학이나 기술발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다(한덕웅, 2003; Creutzig et al., 2022). 사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적, 기술적, 경제적 개혁 수단이 국내외로 치열하게 논의되고 도입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에 대한 정책적, 규범적 응답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의 배출량을 최대한 저감하고 피치못한 배출에 대해서는 흡수원 개발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기 중 탄소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후과학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행동변화를 지체없이 가져오는 것이 탄소중립의 목표이다. 대한민국은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탄소중립을 세계 14번째로 법제화한 나라이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탄소중립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언어정치에는 기후위기 문제를 탄소의 문제로 환원하고 국가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지향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박선아, 2024). 더욱이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도 하향식, 기술주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경향성은 강해진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학을 넘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심리학에 기반하여 많은 이들의 삶과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와 기여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개관연구의 연구 목적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이라는 국내외 도전 과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국내 미시수준 분석단위의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국내 심리학자들의 탄소중립 연구 참여를 위해 심리학과 유관 학문을 두루 살펴보고, 학문간 벽을 넘는 방식으로 심리학 기반 연구가 탄소중립의 현안과 연계될 수 있는 지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환경 커뮤니케이션이 지향하는 현실 개입과 실천적 성격에 맞닿아 있다(Cox, 2013; 채영길, 2019).<sup>1)</sup> 기후커뮤니케이션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거대 담론과 미시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연구를 의식적이고 집단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후위기나 탄소중립과 미시세계를 연결하고자 한 다양한 국내 분야 연구들을 조망하여 ‘탄소중립’에 관한 논의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초점을 두는 “미시세계”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그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연구와 담론은 주로 기술공학적,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 접근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비

1) 환경사회학이나 환경 커뮤니케이션은 한편으로 자연에 대한 서사를 근본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비판적 성격도 가진다. 예컨대, 국내 다수 연구에서 여전히 기후/환경은 메시지의 소재이거나 대상일 뿐, 인간활동의 결과물이자 생태·사회적 대전환을 위한 심층적인 가치 전환을 고민한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채영길,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류세’시대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론 전환에 대한 논의보다는 ‘탄소중립’이 가지는 정책지향적 프레임 안에서만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밝힌다.

해 미시수준(micro-level) 연구의 역할, 즉, 문화적 맥락이 개인의 환경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의 심리적 과정이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져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렇게 미시수준 연구(개인주체, 소비자, 시민)의 인지과정, 감정, 태도, 그리고 일상적 실천 등 세밀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심리사회적 현상이 탄소중립 연구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개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과 탐구는 조직, 집단, 사회에 대한 이론적 관심에도 응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거시적 지속가능성 전환의 축소판이자 전형으로서의 미시세계(microcosm)를 밝히는데 유용할 수 있다.

#### 탄소중립 필요성과 행위성 연구

2000년대를 전후로 환경 문제는 한국 사회 문제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한덕웅, 최훈석, 2006). 국제 사회 차원의 노력과 도전이 구체화된 것은 이보다 앞선 1980년대 후반부터로, 1992년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기본틀 역할을 하는 첫 국제법이다.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시기(약 1850~1900년)에 비해 1.5℃ 이내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195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상향식으로 감축목표와 방안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진전이 있었다(박시원, 2016).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도전과 우려의 시기이기도 했다. COVID-19와 전쟁과 테러 위기 속 여러 국가에서 기후변화 정책은 후순위

가 된 듯 보였고, 특히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파리협정을 재탈퇴했다(이혜경, 2025). 그럼에도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성과와 수치들은 산업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문인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석유, 석탄 등)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은 괄목할만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례 에너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액에서 약 67%인 2.2조 달러가 청정에너지에 투자되었다(IEA, 2025).

이에 반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 11월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sup>2)</sup> 국제 비영리기구 Climate Action Tracker에서도 한국의 기후정책 대응 수준을 “매우 불충분함”으로 분류했다. 이는 모든 나라가 한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면 전지구적 온도 상승은 4℃ 이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Climate Action Tracker, n.d.). 한국의 국가 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연간 4억 3,66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그러나 2023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14% 감축에 그쳐 현재 감축 속도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2) 해당 CCPI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63위에 올라 있는데, 이는 CCPI의 관행에 따른 순위표기이다. CCPI는 ‘세계 어느 국가도 기후변화 대응에 충분할 만큼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담은 3위까지 순위를 항상 공석으로 두고, 4위부터 기록한다.

다(정한교, 2024). 2024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정책이 2030년 이후 감축 계획 부재로 인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Rashid, 2024). 현 시점에서 2025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환경부의 기후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부처인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사회기술적 구성 관점에서 전환은 30년 이상의 과정이며 결코 선형적인 경로가 아니다(Geels, 2002). 그러므로 전세계적인 에너지전환 흐름이나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같은 후퇴나 한국의 부처개편과 같은 새로운 틈새(niche) 노력도 일회일비할 것은 아니다. 기후과학에 입각한 정책 노선을 정하고 가능한 그 경로를 짧게 만드는 것이 사회과학자들의 임무로 요청된다. 오히려 사회 연구자들이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보다도 더 우려하는 것은 ‘사람과 사회’의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과학의 역할 변화와 과학에 대한 신뢰 변화이다.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식이 바뀌면서 전통적인 과학의 역할이 줄어들고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기후위기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실제로 보이고 느껴진다면 그 긴급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기후행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기후변화에서 가장 과학적 권위가 인정되는 기

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보고서는 점점 사회와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IPCC의 4차 보고서와 5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행동과 라이프스타일의 역할이 소개되었고, 6차 평가 보고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수요, 서비스, 사회적 측면에서 조명한 장을 편성하였다(Creutzig et al., 2022). 수요 측면에서의 완화 전략은 인프라와 기술 변화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회피, 전환, 개선을 동반한다. 가장 큰 탄소배출 회피 잠재력을 가지는 수단은 장거리 항공을 줄이고 저탄소 도시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고, 가장 큰 전환 잠재력을 가지는 것은 식물성 식단을 확대하는 것인데(Creutzig et al., 2022), 이와 같은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개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지속가능성 전환과 에너지 사회과학 이론이 다양한 이론적 강조점을 가질 수 있는 가운데, ‘행위성(agency)’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연구 질문에 적합하다(Sovacool et al., 2018).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정책이 기술·공학 일변도에서 사회과학의 개입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나 제도분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에서 개인의 행위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Sovacool et al., 2018). 달리 말하면, 탄소중립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역할이 구조, 담론, 규범적 설명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 컨센서스가 부족하다. 행위성이 어떻게 구조, 담론, 규범성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학자, 커뮤니케이션학, 소비자광고학 등 전문분야의 학자들과 기후정책 분야 학자들 간의 학문적 교류와 상

호참조가 요구된다.

## 방 법

###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종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개별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보다는, 광범위한 학술 지형도를 그리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 서사적 문헌고찰(narrative review)과 범위 검토(scoping review)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서사적 문헌고찰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찰력을 종합하고 포괄적인 범위의 질문에 답하는 데 적합하며(Sovacool et al., 2018), 범위 검토는 특정 주제에 대한 핵심 개념과 잠재적 연구의 간극을 파악하는 탐색적 성격을 지닌다(Urban et al., 2025). 이 두 방법론의 결합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전체적인 연구 지형을 조망해야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

### 분석절차

문헌 수집은 국내 학술 담론에 집중하기 위해 KCI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기후·환경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1) 심리학, (2) 커뮤니케이션학, (3) 환경정책 및 사회학 분야로 한정하였다. 또 다른 주요 분야인 환경교육학은 그 자체로 방대한 논의를 담고 있어,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 분석에서는 정책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또

한, 학술담론이 동료심사를 거친 논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보고서나 학술대회 자료집과 같은 회색문헌(grey literature)을 일부 포함함으로써 논의의 시의성과 풍부함을 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신문방송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그 학술적 형식이 유사하므로, 동일한 표집과정을 거쳤다. 심리학 학술지는 전체기간, 신문방송학은 2019년 이후 문헌으로 한정하여 기후, 환경에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신문방송학의 경우 채영길(2019)에서 2018년까지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에 대해 분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관련성이 적은 일부 논문을 제외한 결과 심리학에서는 총 19편의 논문을, 신문방송학에서는 총 53편의 논문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부록 1, 2 참조). 기간을 고려하면 심리학 분야에서 발간되는 기후·환경 관련 논문이 신문방송학에 비해 양적으로 매우 적었다. 두 학문 분야에서 기후·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시각과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기 위해 목록에 있는 논문들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질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학문 분야에서 사용된 이론적 개념들과 측정된 변수들을 기준으로 3가지 핵심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반면 환경정책 및 사회학분야에서는 개인단위의 접근을 하면서 개인을 이론적 관심으로 하는 연구는 극히 적었기 때문에, 최근 3년 발간물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목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핵심 연구주제를 4가지로 정리하였다.

## 분석 결과

### 심리과학 내 연구 동향

#### 친환경 제품 소비 행동 의도와 요인

먼저, 친환경 소비를 촉진 및 저해하는 개인의 내적 동력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다수 출판되었다(김예진, 박태희, 2025; 김세현 외, 2025; 김종흠, 2012).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또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 주된 이론적 배경으로 사용되었다(김종흠, 2012; 김종흠, 2013). 친환경 속성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주요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 독립변수에는 '제품에 대한 품질 지각', '사용 편의성'(김예진, 박태희, 2025), '도덕적 규범의 내재화'(김종흠, 2012), '자기완성 욕구'(이윤슬, 김은실, 2023) 등 실용적, 심리적 요인들이 있었다.

광고 메시지의 소구 방식이나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 가족 중 자녀의 수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가 연구되었다(안대천 외, 2024; 김세현 외, 2025). 이 연구들은 효과적인 친환경 마케팅 전략이나 정책적 개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김예진, 박태희, 2025; 이윤슬, 김은실, 2023), 업사이클링 제품 등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실증적인 전략을 모색했다(안대천 외, 2024).

#### 기후문제 인식과 반응의 인지적 경로

기후변화라는 거시적이고 복잡한 환경 문제가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경향도 발견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적 유창성과 기후 불안의 정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 연구(김세현 외, 2025), 친환경 태도를 암묵

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로 구분하여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있었다(김종흠, 2012; 김종흠, 최승희, 2020). 개인의 생활 전반에서의 가치 체계와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를 통해 어떤 군집의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양식을 추구하는지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안대천 외, 2023).

한편, 이러한 개인의 인식과 정서적 반응이 미디어나 사회적 캠페인의 매개를 통해 변화하는 것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에서의 사용자 챌린지 문화와 기후변화방지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소셜 미디어 캠페인 참여가 기후변화 정책 인식 개선에 끼치는 영향(이태준 외, 2022)과 기후변화대응 캠페인에서 메시지 프레임의 효과(이기영 외, 2015)가 연구되었다. 이렇듯 사용자가 많아 파급력이 큰 소셜 미디어에서 실제 진행되었던 캠페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접근은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이태준 외, 2022). 또한 지금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지 않았던 2015년 이전에 기후변화대응 캠페인 실험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도 후속연구들의 길을 밝히는 가치가 있다(이기영 외, 2015).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미래 세대의 환경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 심리학의 논의에서도 발견되었다. 환경 실천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연하거나(박상태, 이지우, 2025; 이영미, 이흥표, 2021),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하였다(안정은, 권연희, 2025; 황연주 외, 2024;

2025).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환경 관련 지식, 태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 실천 역량이 유의미하게 증진되는지 검증하기도 하였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집단에서 환경보전지식과 환경보전태도, 창의성, 사회성이 향상됨을 검증하였다(박상태, 이지우, 2025; 이영미, 이홍표, 2021).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에 관한 교사로서의 소양이 향상되었음이 보고되었다(황연주 외, 2024). 이처럼 성인 및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도 심리학회지들에 게재된 논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 환경 커뮤니케이션 내 연구 동향

#####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보도 방식과 영향

언론이 기후·환경 이슈를 어떻게 프레임하고, 그것이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각종 언론 매체가 기후변화를 보도할 때 강조하는 프레임이 무엇인지, 언론의 정파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김천수, 2025; 조연주, 2025; 이견혁, 안차수, 2024; 이현승, 2025). 경제, 환경, 이익, 손실이라는 4가지 프레임을 사용해 어떤 프레임이 친환경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하거나(곽경린, 김영욱, 2025), 기후변화 보도 유형과 수치적 프레임의 차이가 수용자의 인지적 평가와 부정적 감정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였다(임인재, 김영욱, 2019). 환경 문제의 책임을 귀인하는 방식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민화 외, 2025). 이러한 미

디어 프레임은 대중의 환경 인식과 정책적 의견, 친환경 행동 의도에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은 논문들은 저널리즘적 함의를 제공한다. 언론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보도에서 경제 논리와 정파성을 넘어 공적 역할과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김천수, 2025). 또한 기후·환경 문제와 같이 대중의 참여가 중요한 경우, 언론은 대중의 공감을 유도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메시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정민화 외, 2025).

##### 친환경 행동과 소비 유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도 친환경 행동과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연구들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친환경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지적하거나(박은영, 2021), 미디어를 통한 환경 정보 이용(이창은 외, 2024), 온라인 환경교육(이혜선, 조재희, 2023; 이혜선, 나은영, 2022), 광고 메시지 소구 유형(박은영, 2021), 메시지 프레임(곽경린, 김영욱, 2025) 등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박은영, 2021). 이론적으로는 위험정보 탐색처리모형(RISP)(함승경, 김영욱, 2025; 장혜연 외, 2024), 확장된 병행과정모델(EPPM)(박우승 외, 2024), 계획된 행동이론(TPB)(이정훈, 이종민, 2024a; 2024b) 등의 이론적 배경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한편, 친환경 소비와 행동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중

류에는 친환경자동차 구매(이정훈, 이종민, 2024a; 2024b), 친환경 라벨이 붙은 제품(박지혜, 이유재, 2022), 샴푸바 사용(김수연 외, 2024), 육류 섭취 저감(김가람 외, 2023), 플라스틱 사용 저감(임벽함, 이승조, 2023) 등 다양한 소비재에 관한 행동들이 다루어졌다.

### 온라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뉴스, 신문 등 전통적 매체를 넘어 유튜브, 소셜미디어,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 습득과 여론 형성의 핵심 매체로 부상하면서, 기후·환경 연구에서도 이 공간의 역할을 다룬 논문들이 등장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행동 참여를 유도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환경주의를 실천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이동후, 이설희, 2024).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환경 캠페인의 필수 전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구체화한 개념을 통해 친환경 행동을 설명한 연구들이 나왔다. ‘온라인 액티비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의 기후변화 문제 인식 정도가 온라인 액티비즘을 매개하여 친환경 행동으로 연결됨을 분석한 연구(김정은 외, 2024), 온라인 환경교육이 자연과의 유대감과 친환경 행동 의도를 변화시키는 지 보는 연구가 있었다(이혜선, 나은영, 2022).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공공커뮤니케이션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주장하였고(임연수, 2021; 임연수 외, 2021), TV, 신문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환경 정보 제공 노력이 환경에 대한 관여도를 높여 친환경 행동의도에 영

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주남 외, 2022). 온라인 공간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이 연구들은 친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 공간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 환경정책 및 환경사회학 내 연구 동향

#### 교육제도 내외의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은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 환경문제 예방과 해결 소양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교육법과 타 유관 법률들에 따르면 환경교육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공식 정책 수단이다. 환경교육은 규제와 감독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정책 수단을 넘어 자발적 대응을 유도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능을 가진다. 환경 캠페인이나 홍보와 달리, 환경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주기에 맞추어 설계된다는 특징이 있다. 환경교육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은 제도화 수준이 높은 편이며, 사회 환경교육은 다양한 형식, 현장,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장미정 외, 2019).

대표적으로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와 한국 환경교육학회의 학술지는 다양한 주제의 개념과 실증 연구를 싣고 있다. 《에너지기후변화교육》(2011년 창간)의 여러 연구에서 자주 소개되는 기후소양, 생태소양, 에너지 소양, 위험 리터러시와 같은 개념은 환경교육이 개인의 복합적인 인식을 개념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여러 연구들은 이와 기후 행동 의지, 과학적 태도, 자기효능감 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에너지기후변화교육》에 게재된

연구 대부분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국한된다. 《환경교육》(1990년 창간)에서는 대학생, 기후행동 프로젝트 참여자(김미연, 김찬국, 2024), 태극기 집회 참가자(신혜정, 윤순진, 2023), 연안 소도시 노년층(최지은, 성정희, 2024) 등 다양한 개인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설문뿐 아니라 내러티브 탐구, 생애사 접근 등을 통해 발견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환경교육 문헌은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일회적 반응이 아닌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누적, 그리고 정책적 개입의 산물로 볼 근거를 제공한다. 예컨대 어떠한 환경교육을 선호하는지도 하나의 정책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강진영, 홍종호, 2024). 시민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후과학과 대응방안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교육은 정당화된다. 개인 단위 연구에 대한 고전 이론들이 기후변화의 선형적 정보전달에 더 관심을 가질 때, 교육학 문헌은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에 주목한다. 반복적이고 심화된 학습과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누적을 이해할 때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문화간 차이에 대한 이론적인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가 특히 초중등 교육제도 하에 있다면 개인의 반응은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교육 문헌과의 결합은 실증적 연구에서 정보만으로 개인 행동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연구설계 내부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탄소중립 정책 수용성

탄소중립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합리성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에 크게 좌우

된다. 정책 설계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시민 문화, 조직 관행, 개발 지향성, 소통 구조라는 네 문화권역이 변하지 않으면 저탄소, 순환사회로의 이행이 구조적으로 지연된다(조공장 외, 2019). ‘환경문화가 정책 수용자의 가치관과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행위자의 어떠한 신념, 가치, 행동이 정책 의미를 재해석하는데 기여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화와 환경인식의 상호작용은 문화가 개인의 심리적 과정을 형성한다는 문화심리학의 전제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에서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는 환경정책이 다양한 가치 집단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정책 필요성과, 전 지구적이고 지역적인 지속가능한 전환이 전례없는 규모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범에 의해 추동된다.

특히 에너지전환 영역은 정책 수용성 연구가 가장 활발히 축적된 분야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전환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갈등, 민주주의, 정의의 문제로도 접근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 그 자체가 아니라 경관 훼손, 신뢰, 위험 인식, 그리고 장소애착 등이 독특하게 결합된 문화적 이해들에 기인한다(박선아, 윤순진, 2018; 김은성, 2018).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갈등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해상풍력에서도 다양한,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조사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류호재 외, 2025; 박종문 외, 2021). 사실상 같은 정책이라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라도 수용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홍은영, 박천희, 2024). 수송부문 역시 중요한 에너지전환의 영

역이면서 우리의 삶에 직접 체감되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수송부문의 세금과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다양한 수송부문 이해관계자들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를 질적 양적 방식으로 사전에 진단할 수 있다(홍덕화 외, 2020).

탄소중립 정책의 다층적인 정책 수용성 연구는 정책 충돌을 예비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비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오히려 기술과 경제 분석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다층적이고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통해 더 근본적인 지속가능성 전환을 이루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환경갈등, 정치, 그리고 환경의식은 모두 한국 환경사회학의 중요한 주제였다(박재묵, 2014). 미시단위 관점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거시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는 환경사회학과 환경정책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학제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대규모 시민 인식 조사

한국환경연구원(KEI)은 2012년부터 매년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기후변화뿐 아니라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국민의 환경인식·태도·실천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2024년 수행된 조사(사례수=3,040)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환경문제 1위로 기후변화(68.2%)가 꼽혔는데, 이는 2021년부터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은 응답자가 매해 5~10%p가량씩 증가한 것(염정운, 강선아, 2024)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최근 큰 변화에 직면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적으로 장기·정기적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정책적 요인에 따른 환경심리 변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염정운 외(2021)는 환경 실천이 대체로 환경 정서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시민 대다수가 환경에 대한 정서가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타 연구 설계에서도 국민환경의식조사의 조사 문항이 매년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를 참고한다면, 환경심리학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참여가 '개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동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 시사IN-한국리서치 기후위기 인식 조사는 기후정치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비용 전가', '기후우울' 등 심층적인 인식을 포함하여 290개 문항을 1000명에게 물어보았다(이오성, 김다운, 2022). 한국리서치는 2019년과 2024년에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특히 2024년 조사는 기후운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오승호, 2024; 한국리서치, 2019). 이 조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식에서의 흥미로운 불일치들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피해 위험을 전 지구적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본다. 동시에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전 세계적 에너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보다 적다. 정치성향별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미국 사회가 정치적 입장에 따른 극단적인 기후변화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도 그 징후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문승민(2024)은 직

접적으로 기후운동에 참여하는 심리적 변인을 조사하였는데, 가치관이나 정책 불만족보다도 정책 리더러시가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의 결과들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더라도 조사의 초점은 사회 단위에 있기에, 개인에게 묻는 항목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동적 피해뿐 아니라 능동적,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행동의도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국사회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설명하는 작업이기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이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2024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는 개인 차원의 행동(의도)의 항목으로는 생활 속 친환경적 노력과 선거 투표시 공약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물었다(염정운, 강선아, 2024).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서 개인단위의 역할을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인의 행동과 정책 지지를 함께 분석했다(안정선, 김여정, 2022; 김영옥 외, 2018). 무엇에 대해 연구할 것인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특정 집단의 기후 및 행동 인식

환경사회학과 환경정책 등 지속가능성 전환(sustainable transition) 연구에서도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가 적지 않게 등장한다.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하는 연구는 이들 동료집단 학회지보다는 학술대회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 편이며, 학회지는 사회학과 정책학에서의 초점에 맞게 집단이나 조직을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예컨대 최근 3개년의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및 환경정책학

회 발표논문들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 주민들(“경기도민”, “월성군 주민”)의 환경 의식이나 특정 집단(“노년기 여성 1인가구”, “출산가구”, “유학생”, “디지털 네이티브”, “대학생”, “노인 폐기물 수거자” 등)의 기후변화 인식 및 대응행동과 같은 개인 차원의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면밀한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과 참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맥락적 발견은, 유사한 맥락에 놓인 타 집단에서 검증해야 할 가설과 주요 변수들을 제시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들이 밝혀 놓은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 메커니즘은 후속 확증적 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논 의

심리학과 환경 커뮤니케이션학의 기후·환경 연구는 공통적으로 ‘친환경 행동’을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두고, 이를 예측하기 위해 행동 의도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한다. 두 분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동의 원인을 탐색하는 인식론적 기반에 있다. 심리학 연구는 주로 태도, 신념, 가치, 규범 등 개인의 내적 특성에서 행동의 동력을 찾는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가 두드러진다.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은 그 주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적 특성의 차이와 행동 의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반면,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언론 보도의 프레임, 캠페인 메시지, 온라인 플랫폼의 상호작용 등 개인을 둘러싼 외부의 미디어 및 사회적 환경도 함께 주목한

다. 위협정보 탐색처리모형(RISP)이나 확장된 병행과정모델(EPPM) 등을 적용하여, 외부의 메시지가 개인의 인식과 감정을 거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접근 방식의 차이는 연구의 실천적 성격에서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실제 언론 보도나 틱톡,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반면 심리과학 연구는 행동의 근원적인 심리 기제를 밝혀 마케팅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강점이 있다. 그러나 때로는 통제된 실험 환경에 머물러 사회의 복잡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즉, 심리과학 연구의 초점이 개인의 특성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머무를 경우,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구조와 미디어 환경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학계 연구가 개인 외면의 미시세계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까지 연구에 포괄한다면 현실의 인간 행동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심리학계 연구자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가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간 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법 한 가지를 다음 절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한편, 탄소중립이 그 자체로 논의되는 학문 영역인 환경사회학과 환경정책에서 미시세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이론적 긴장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앞선 문헌 검토가 주로 《환경사회학연구(ECO)》와 《환경정책》에 국한되었는데 《공간과사회》와 같은 학술지에서는 개인단위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

대 소비자들의 친환경 기업의 물품 구입 의도는 소비자 광고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사회학적 입장에서, 이는 '정치적 소비주의'에 대한 입장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친환경 기업 물품 구매를 진작하는 것은 기후정책의 행동을 소비의 문제로 축소 환원한다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얼마나 집합적으로 개입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볼 수도 있다(홍덕화, 2024). 이에 비추어 볼 때, 탄소중립에서 행위성이 구조, 담론, 규범 사이에 어떻게 위치지어지고 어떻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큰 연구공백이 확인된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미시세계 연구의 고유한 특성을 3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표 1 요약). 첫 번째 특성은 인지적 특성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가지는 비가시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기후변화는 위협인식의 대상으로 종종 다루어졌고, 심리적 변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향후 탄소중립에의 기여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위기가 일회적인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더 깊이 연계된 장기적인 문제로 상정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기후우울, 기후재난과 같은 새로운 현상들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를 것이다. 환경교육에서의 교훈과, 문화적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더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특성은 행동적 특성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가지는 위급성과 시급성에 기인한다.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 사회학과 정책학 모두 정책적 개인적 행동이라는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연구의 고유한 특성이다. 향후에는 개인의 행동을 설득하기 위

표 1. 탄소중립 미시세계 연구의 고유성

특성	인지적 특성	행동적 특성	정치적 특성
설명	비가시성, 위험인식, 심리적 변인	위급성과 시급성의 강조(규범성), 정책 수용성, 친환경행동	정치적 불안정성, 다층적 개혁 우선순위, 담론 분화(예: 기후운동)
향후 연구방향	과학기반 이해형성, 심리에 대한 문화의 역할	설득연구 고도화, 행동규범의 맥락의존성, 정책 및 전환 지지	정책/사회 개혁과 연관된 심층적 정당성 인지, 이론적 다양화(감정, 동료, 미디어 등)
참조분야	심리학, 환경교육	커뮤니케이션, 환경정책	환경사회학

한 연구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비자 차원과 시민 캠페인 양 차원에서 심화될 수 있으며, 국내의 맥락에서 추가적인 행동규범이 발굴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수용성 연구는 더 적극적인 전환에 대한 지지에 대한 탐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특성은 정치적 특성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가지는 정치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기후과학은 진실이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해 호도되고 왜곡되는 경향 역시 국내외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시세계 연구에도 현실 균형감각은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다른 개혁정책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보수적 담론에서 급진적 담론까지 다변화되고 있다. 향후 미시세계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탄소중립 정책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양한 연구자들이 감정에 기반한 이론, 동료효과와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 미디어에 대한 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이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제를 개발하는 단계들을 정책의 관점에서 재정리하면 아래 4단계와 같다. 첫째, 시행중

인 개인행동 진작 정책의 효과성을 볼 수 있다. 친환경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탄소발자국이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시행이 필요한 개인행동 진작 정책의 예비 효과성을 볼 수 있다. 채식이 개인의 선호와 윤리 문제를 넘어 정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볼 수 있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양적 질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수용성을 볼 수 있다. 전기차, 가정용태양광, 스마트미터 등 과학기술의 전환을 수반되는 지점에서 대중의 수용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개인 너머의 행동: 사회적 실천

살펴보았듯 심리학에서는 기후·환경에 관한 인간의 행동을 개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 또한 개인적 특성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예를 들어 캠페인을 통해 개인의 환경 인식을 함양하기). 반면, 사회학의 한 이론에서는 기후·환경에 관련된 많은 개인의 행동들을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속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

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중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회적 실천 이론(Social Practice Theory)이라 부른다. 여기서 실천(practice)이란 행동(behavior)과 의미상 유사하지만 더 한정적인 의미로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형태의 행동이며, 신체적·정신적 활동과 사물, 사물의 쓰임새, 배경지식, 정서적 상태와 지식들이 상호 연결되어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된다(Reckwitz, 2002).

사회적 실천이론의 토대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정립하였다. 부르디외는 당시 기존의 행동 이론들이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는 것이 인간 행동의 사회적, 물질적, 역사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Bourdieu, 1977; Willhite, 2016). 사회적 실천이론 관점에서 에너지 과소비, 일회용품 사용, 자가용 의존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행동의 원인은 개인의 부도덕한 태도나 저조한 환경 의식에서 찾지 않는다. 그보다는 실천이 행해지는 사회적, 물리적 공간의 특성이 해당 실천이 반복되어 나타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마치 맑은 물과 수초와 바위가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물고기가 나타나듯, 특정한 실천이 사회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면 이는 사회적 요소들이 그러한 실천이 쉽게 나타나도록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Reckwitz, 2002).

Bourdieu(1977)가 정립한 사회적 실천이론은 2000년대에 들어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인간 행동은 주로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이해되었다.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행동통제 인식(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라는 3가지 측정 가능한 요인으로 인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이 각광받게 되었고(Ajzen, 1991), 곧 친환경 행동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널리 사용되게 된다. 그러나,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모델이라는 점과 의도와 행동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함께 받게 된다(호규현, 나은영, 2023; Taghavi & Maharati, 2024). 태도 변화와 사회적 규범 주입과 같은 개인주의적 접근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이나 폐기물 감축 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반성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실천이론이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다(Shove, 2010).

2000년대 초기 사회적 실천이론 학자들은 물을 마시고 에너지를 쓰는 행동처럼 모든 인구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졌다(Gronow & Warde 2001; Shove & Warde 2002; Dunlap & Brulle, 2015).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일상적 행동 중 많은 부분이 매 순간 태도나 규범과 같은 요인에 통제되는 것이 아니며 마치 습관처럼 의식적 개입 없이 그저 매일 반복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환경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통찰을 얻었다. 예를 들어,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많은 개인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 온수로 샤워하는 생활방식을 유지하는데, 이를 태도나 규범의 부재로나 규범의 부재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Kuijer, 2014). 그보다는 샤워하기와 같은 행동은 개인의 심리 바깥 사회·문화에 내재되어(embedded)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회적 실천이다(Hand et al., 2005).

이후 사회적 실천이론을 실생활 연구에 사

용하고자 이론적 틀짓기 작업이 이어져, 근래에는 사회적 실천을 ‘의미(meanings)’, ‘물질(materials)’, ‘역량(competences)’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배열과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론적 틀이 수렴되었다(Shove & Pantzar, 2005; Darnton et al., 2011). 각 요소의 개념과 적용을 신혼부부의 혼수 가전구입 행동을 한 예시로 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sup>3)</sup> ‘의미’는 실천에 수반되는 상징적 의미, 아이디어, 열망, 믿음, 정체성, 미학 등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개념들을 말하며 실천의 기능적 목적보다 사회적 상징성이나 정서적 반응에 중점을 둔다. 신혼부부들은 왜 혼수 장만을 명목으로 다수의 가전제품을 일거에 취득하는 것일까?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결혼의 로망’ 등으로 여기고 이를 실현하고자 세련된 고가 가전제품들을 망설임 없이 구매한다.

‘물질’은 실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화된 객체 전반을 의미하며, 장비, 기술, 물리적 실체, 인프라 등 실천에 필요하거나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물리적 요소들을 말한다. 신혼부부들에게 신혼집의 물리적 구조 자체는 특정한 크기의 냉장고, 건조기, 에어컨 등의 가전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물질’ 요소이다.

‘역량’은 실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 절차, 지식, 규칙, 암묵적 지식, 체화된 기술을 포함하며, 실천의 수행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신혼부부는 가전제품 판

매점의 혼수할인 이벤트를 이용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전제품 정보와 심미적인 만족감을 주는 가전제품 배치 노하우를 얻는 식으로 ‘역량’을 동원한다.

의미, 물질, 역량의 요소들 사이의 배열과 상호작용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실천을 빚어낸다. 신혼부부의 가전제품 구매 예시처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주관적 감상과, 실천을 행하는 공간인 신혼집의 물리적 구조와 가전제품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배열되고 상호작용하여 오늘날 많은 신혼부부가 마치 합의한 것처럼 다수의 가전제품을 일거에 취득하는 사회적 실천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류호재, 윤순진, 2023).

사회적 실천이론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후·환경 관련 인간 행동의 해석에 활용되어 왔다. 자전거 통근(Bruno & Nikolaeva, 2020), 가정 내 에너지 소비 행위(Wang et al., 2020), 가전제품의 취득 실천(류호재, 윤순진, 2023; Aro, 2017),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Dyen et al., 2021),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Rabiu & Jaeger-Erben, 2024), 세탁 헿수 줄이기(Sahakian et al., 2021), 일회용 페트병 소비 줄이기(Tosun et al., 2020), 사무실에서 에너지 소비 절약 실천(Hargreaves, 2011), 가구 폐기물 재활용과 재사용(Hedlund & Jaca, 2025) 등 다양한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다루어 왔다. 사회적 실천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의도-행동 간극’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개별 행동의 합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천의 반복적 수행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기후·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원인에 사회적 요소의 책임도 있음을 조명하는 것이다(표 2 참조).

3) 이하의 신혼부부 혼수 예시는 류호재와 윤순진(2023)이 신혼부부가 혼수 장만을 명목으로 다수의 가전제품을 일거에 취득하는 현상을 사회적 실천이론으로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 내용을 차용한 것임을 밝힌다.

표 2.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적 실천이론의 비교

구분	계획된 행동이론	사회적 실천이론
분석 단위	개인의 행동(Behavior)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핵심 가정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행위자 행동은 개인의 의지의 결과	인간은 사회적 실천의 전달자 실천은 사회적으로 구성
행동의 요인, 실천의 요소	태도, 규범, 통제 인식, 의도	물질, 역량, 의미
변화 전략	개인의 신념, 태도, 정보 제공	실천 요소들의 재구성, 새로운 실천의 도입

심리학계 연구가 인간 행동을 더욱 타당하게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행동이론들의 관점에 사회적 실천이라는 관점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개인의 특성과 함께 사회적 맥락 속 습관화되어 나타나는 행동들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다. 개인주의적 접근이 제공하는 통찰을 존중하되, 사회적 실천으로서 관계된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폭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개입의 초점 또한 개인의 태도나 규범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외에도 실천의 요소를 재배열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결론

본 연구는 탄소중립에서 개인의 역할에 주목하며 인접 학문들의 논의에서도 특징적인 문헌의 동향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시대의 개인의 역할은 ‘현명한 소비자나 ‘정책 수용자’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칫 자기 만족적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미시세계 연구가 현실 정책과 연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지적, 행동적,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 환경정책 연구가 제도 설계와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미시세계 연구는 행동 변화의 미시적 동력을 파악하고, 정책 수용성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며,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 대한 문화적 적응과 저항을 포착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 간 유효한 접합을 만들면서도 전통적 연구 엄밀성 패러다임과의 조화를 피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한 기후전문기자는 좋은 기후위기 기사란 이해하기 쉬우면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현재성을 담은 기사라고 했다(김다운, 2022). 좋은 기후위기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의 내적 완결성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현재적 맥락과 공명하며 탄소중립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여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앞에서 사회과학 연구자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은 연구자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과학의 역할은 우리 사회가 처한 물적인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게 하고, 과학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합의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에 이어서 다양한 대안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인단위의 연구는 이러한 점증하는 담론속에 위치하게 된다.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기술 발전을 통해 매끄럽게 해결해낼 수 있는가,

우리의 생활속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근본적 사회변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문제인가,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것인가? 기후위기는 많은 인식론적 질문들을 제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시세계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는 탄소중립이라는 난제를 함께 풀어가는 시민 동반자로 다시 읽혀야 한다. 탄소중립 시대의 미시세계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효과성도 고민해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구 및 사회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고안하는 교차점을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진영, 홍종호 (2024). 공급방식에 따른 환경 교육 선호에 대한 실증연구. *환경정책*, 32(3), 75-97.
- 곽경린, 김영욱 (2025). 메시지 프레이밍이 플라스틱에 관한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및 생성감과 학습된 무기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9(1), 55-96.
- 관계부처 합동 (2023. 4.).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 김가람, 조활원, 조수영 (2023).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육류 소비 저감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준거점 설정과 비교성 네티지의 활용. *한국광고홍보학보*, 25(4), 117-161.
- 김다운 (2022). 언론 - 아, 당신이 그 기사를 쓴 사람이군요! In 조천호, 황수영, 김동훈, 김병권, 이한경 (Eds.), *2023 기후 전망과 전략* (pp. 118-133). 착한책가게.
- 김미연, 김찬국. (2024). 지역 기반 기후변화교육의 의미와 가능성 탐색: '우리 지역 기후행동 프로젝트' 참여자의 경험과 변화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37(3), 303-323.
- 김세현, 김현, 조연수, 정영주, 성용준 (2025). 친환경 소비 의도에 대한 부모 성별과 자녀 수의 상호작용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적 유창성과 기후 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6(1), 125-151.
- 김수연, 설진선, 이용주 (2024). 정말 한국의 Z세대 소비자는 일반 제품보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더 높을까?: 가격에 따른 소비가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8(2), 212-254.
- 김영욱, 박단아, 민혜민 (2018). 기후 변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완화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 인식의 매개 효과와 효능감의 조절 효과 중심 분석. *광고연구*, 118, 127-170.
- 김예진, 박태희 (2025). 친환경 소구와 사용편의성이 친환경 제품의 품질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6(1), 63-78
- 김은성 (2018). 우리나라 풍력발전단지의 주민 수용성에 대한 감각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 *환경사회학연구 ECO*, 22(1), 209-241.
- 김정은, 박보형, 한미정 (2024). 친환경 행동에 관련한 온라인 액티비즘의 매개적 역할 탐구: 지구온난화에 관련한 인지적·정서적 요인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6(1), 73-116.
- 김중흠, 최승희 (2020). 규범과 통제소재가 개인의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암묵

- 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1(4), 657-678.
- 김중흠 (2012). 친환경 행동 및 친환경 유기농산물 구매의도에 대한 도덕적 규범의 활성화 효과 -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3(2), 137-158.
- 김중흠 (2013).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 가치지향성, 메시지 전달방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4(1), 155-175.
- 김천수 (2025). 국가기간뉴스통신사와 기후변화: <연합뉴스>의 기후변화 보도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9(1), 58-85
- 류호재, 안승혁, 소윤미, 하지훈, 차영희, 윤순진. (2025).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구성과 드러나지 않은 이해관계자: 신안군 사례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29(1), 241-291.
- 류호재, 윤순진 (2023). 결혼을 통한 가전제품 취득과 새로운 에너지 소비 생활양식 형성. *소비문화연구*, 26(3), 1-32.
- 문승민 (2024). 우리는 왜 기후 운동에 참여하는가?: 가치, 정책, 기후변화 요인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32(1), 125-153.
- 박상태, 이지우 (2025).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반한 자원재활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심리운동연구*, 11(1), 49-65.
- 박선아, 윤순진 (2018). 장소애착 맥락으로 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갈등과 수용성. *환경사회학연구 ECO*, 22(2), 267-317.
- 박선아 (2024). 탄소중립의 언어정치. In 남종영, 박범순 (Eds.), *인류세 풍경: 우리 곁의 파국들과 희망들* (pp. 55 - 67). 이음.
- 박시원 (2016).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환경법과 정책*, 16, 285-322.
- 박우승, 한승엽, 이현지, 조재희 (2024). EPPM 모델을 적용한 기후변화 예방행위의도에 관한 연구: 폭염 문제를 중심으로. *PR연구*, 28(1), 63-105.
- 박은영 (2021). 광고 메시지 소구 유형이 친환경 제품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마케팅저널*, 14(1), 59-72.
- 박재묵 (2014). '환경과 사회'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1), 55 - 85.
- 박종문, 임효숙, 박선아, 조공장 (2021). 해상풍력 수용성에 대한 어민 인식 조사. *환경정책*, 29(4), 83-109.
- 박지혜, 이유재 (2022). 친환경라벨이 역효과를 가져올 때: 쾌락재와 실용재에 대한 친환경라벨의 차별적 효과. *서비스마케팅저널*, 15(2), 5-18.
- 신혜정, 윤순진. (2023). 기후·환경에 앞서는 '생존': 생애사를 통해 본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기후·환경 인식과 가치관. *환경교육*, 36(4), 390-412.
- 안대천, 김재영, 왕의니 (2024). 경기상황과 광고메시지의 조절초점에 따른 친환경 제품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심리적 변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5(3), 365-396.
- 안대천, 김재영, 정재현, 왕의니 (2023). 소비자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유형화와 지속가능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4(3), 219-244.
- 안정선, 김여정 (2022). 한국인의 기후변화 신념, 위험인식, 대응행동: 커뮤니케이션 채널 유형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8(2), 85-116.

- 안정은, 권연희 (2025).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6(1), 47-68.
- 염정윤, 김남수, 정행운, 정우현 (2021). 시민 인식의 녹색 전환을 위한 환경 리터러시 진단 및 강화 방안. *한국환경연구원*.
- 염정윤, 강선아 (2024). 2024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연구원*.
- 오승호 (2024. 6. 4). [기획] 기후변화 경각심, 약해지고 있는가? -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조사. *여론속의여론*, (주)한국리서치. <https://hrcopinion.co.kr/archives/30034>
- 이건혁, 안차수 (2024). 기후위기와 언론인 의식: 기후관련 연합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8(4), 133-166.
- 이기영, 이진균, 임연수 (2015). 기후변화방지 캠페인을 위한 메시지 프레이밍의 전략적 사용: 이슈관여도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6(2), 249-268.
- 이영미, 이홍표 (2021). 재활용품 활용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1(1), 141-163.
- 이동후, 이설희 (2024).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일상적 환경주의 경험에 관한 질적 고찰: 친환경 소비자 주체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28, 174-213
- 이오성, 김다은 (2022. 1. 10).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시사IN*, 74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06>
- 이윤슬, 김은실 (2023). 피드백 및 회상이 친환경 소비 의도와 광고 메시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자기 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4(2), 167-194.
- 이정훈, 이종민 (2024a). 친환경자동차 구매행동에 미치는 목표프레임의 조절효과. *광고연구*, 142, 187-219
- 이정훈, 이종민 (2024b). 친환경자동차 구매행동에 미치는 예측비용의 조절효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6(3), 141-172.
- 이창은, 마혜현, 백혜진 (2024). 미디어를 통한 환경정보 이용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능력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68(5), 196-232.
- 이태준, 노환호, 이병관 (2022). 틱톡 챌린지 (TikTok Challenge) 참여가 탄소 중립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틱톡 챌린지 태도와 정부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3(2), 105-127.
- 이현승 (2025).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보도: 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차이 분석. *한국소통학보*, 24(2), 463-537.
- 이혜경 (2025, 2월 12일).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의의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2323. *국회입법조사처*.
- 이혜선, 나은영 (2022). 온라인 환경교육이 20대의 자연과의 유대감과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 지식과 자연과의 상징적 접촉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6(4), 1-42.
- 이혜선, 조재희 (2023). 온라인 환경교육의 경험적·분석적 정보와 상징적 접촉에 따른 자연과의 유대감과 친환경 행동. *한국언*

- 론정보학보, 117, 87-120.
- 임벽함, 이승조 (2023). 플라스틱 남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메시지의 효과 발현에 호혜적/공감적 소구와 보편주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23(2), 156-192.
- 임연수, 이진균, 이기영 (2021). 유튜브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공공커뮤니케이션 방향 모색. *광고pr실학연구*, 14(3), 155-184.
- 임연수 (2021). 유튜브 매개 공공커뮤니케이션 모형과 방향성 모색: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3(3), 137-174.
- 임인재, 김영옥 (2019). 기후변화 보도 유형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연구: 감정의 인지적 평가 이론 중심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96, 37-72.
- 장미정, 임수정, 전푸름 (2019). 한국 사회 환경교육의 발전 과정: 『환경교육』을 통해 본 사회 환경교육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32(3), 276-303.
- 장혜연, 채윤정, 최의락, 조재희 (2024). 미세 플라스틱 관련 환경정보 탐색과 처리가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협정보 탐색처리모형 (RISP) 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8(4), 240-280.
- 정민화, 김가영, 정세훈 (2025). 기후변화 관련 미디어 귀인이 공중의 책임 판단 및 정책 의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통학보*, 24(1), 53-88.
- 정한교 (2024. 9. 10). 대한민국 '2030 NDC' 중간점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 *인더스트리 뉴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51>
- 조공장, 정우현, 김도균, 김수빈 (2019).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조연주 (2025). 공영방송 KBS와 민영방송 SBS의 기후변화 보도 비교분석: 방글라데시 기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29, 232-267.
- 주남, 호규현, 조재희 (2022). 환경 관련 대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채널별 정보 노출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관여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3, 177-206.
- 채영길 (2019). 국내 환경커뮤니케이션 (Environmental Communication)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보*, 97, 119-152.
- 최지은, 성정희. (2024). 기후적응 리빙랩 운영을 위한 인식조사: 연안 소도시 노년층 대상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37(3), 434-449.
- 한국리서치 (2024, 11월 29일).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기후변화 [데이터 세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9-0124-V1>
- 한덕웅 (2003). 한국사회에서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 35-55.
- 한덕웅, 최훈석 (2006). 한국 사회문제의 변화: 지난 10년간 세 시점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03-128.
- 함승경, 김영옥 (2025). 기후변화 위협정보 탐색에 있어서 문화적 세계관의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129, 322-349
- 호규현, 나은영 (2023). 디지털 게임에 대한 계

- 획행동이론의 적용: 중요한 타인과 균형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3), 275-304.
- 홍덕화, 윤순진, 김우창, 박선아, 박진영 (2020). 인식적 요소를 고려한 수송부문 전환 관리 방안 모색: 경유 상대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0(3), 240-277.
- 홍덕화 (2024). 기후위기 시대, 갈림길에 선 한국 환경운동. *환경사회학연구 ECO*, 28(1), 87-136.
- 홍은영, 박천희 (2024). 조건적 상황에 따른 원전 수용성 태도 변화 연구: VBN 모형과 위험지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8(2), 57-103.
- 황연주, 황희숙, 김빛내 (2024).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STEAM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5(2), 45-71.
- 황연주, 황희숙, 김빛내 (2025). STEAM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분석: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6(1), 21-45.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ro, R. (2017). 'A bigger living room required a bigger TV': Doing and negotiating necessity in well-to-do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Culture*, 20(4), 498-520.
- Bruno, M., & Nikolaeva, A. (2020). Towards a maintenance-based approach to mode shift: Comparing two cases of Dutch cycling policy using social practice theor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86, 102772.
- Climate Action Tracker. (n.d.). South Korea.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 Creutzig, F., Roy, J., Devine-Wright, P., Díaz-José, J., Geels, F. W., Grubler, A., ... & Weber, E. U. (2022). Demand, services and social aspects of mitigation. In IPCC (Eds.),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rnton, A., Verplanken, B., White, P., & Whitmarsh, L. (2011). *Habits, routines and sustainable lifestyles*.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Food and Rural Affairs.
- Dunlap, R. E., & Brulle, R. J. (Eds.). (2015). *Climate change and society: Sociological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 Geels, F. W. (2002). Technological transitions as evolutionary reconfiguration processes: A multi-level perspective and a case-study. *Research Policy*, 31(8-9), 1257-1274.
- Gronow, J., & Warde, A. (2001). Introduction. In Gronow, J., & Warde, A. (Eds.), *Ordinary consumption* (pp. 1-8). Psychology Press.
- Hand, M., Shove, E., & Southerton, D. (2005). Explaining showering: A discussion of the material, conventional, and temporal dimensions of practice.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10(2), 101-113.
- Hargreaves, T. (2011). Practice-ing behaviour change: Applying social practice theory to pro-environmental behaviour change. *Journal of Consumer Culture*, 11(1), 79-99.
- Hedlund, C., & Jaca, C. (2025). Rethinking Waste: Consumer Decisions on Reuse and

- Recycling at a Swedish Recycling Center. *Cleaner and Responsible Consumption*, 18, 100307.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5). *World energy investment 2025 (10th Edition)*. IEA. <https://www.iea.org/reports/world-energy-investment-2025>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2025).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25*. IRENA.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5/Mar/Renewable-capacity-statistics-2025>
- Rabiu, M. K., & Jaeger-Erben, M. (2024). Reducing single-use plastic in everyday social practices: Insights from a living lab experiment.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200, 107303.
- Rashid, R. (2024, August 29). South Korea's climate law violates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court rule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aug/29/south-korea-court-climate-law-violates-rights-future-generations>
- Reckwitz, A. (2002). Toward a theory of social practices: A development in culturalist theoriz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2), 243-263.
- Sahakian, M., Rau, H., Grealis, E., Godin, L., Wallenborn, G., Backhaus, J., Friis, F., Genus, A. T., Goggins, G., Heaslip, E., Heiskanen, E., Iskandarova, M., Louise Jensen, C., Laakso, S., Musch, A.-K., Scholl, C., Vadovics, E., Vadovics, K., Vasseur, V., & Fahy, F. (2021). Challenging social norms to recraft practices: A Living Lab approach to reducing household energy use in eight European countries.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72, 101881.
- Shove, E. (2010). Beyond the ABC: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ories of Social Change.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42(6), 1273-1285.
- Shove, E., & Pantzar, M. (2005). Consumers, producers and practices: Understanding the invention and reinvention of Nordic walking. *Journal of Consumer Culture*, 5(1), 43-64.
- Shove, E., & Warde, A. (2002). Inconspicuous consumption: the sociology of consumption, lifestyles and the environment. *Sociological theory and the environment: classical foundations, contemporary insights*, 23(51), 230-251.
- Sovacool, B. K., Axsen, J., & Sorrell, S. (2018). Promoting novelty, rigor, and style in energy social science: Towards codes of practice for appropriate methods and research design.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45, 12-42.
- The Ecologist. (2017, May 9). Nature's rights: A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cologist*. <https://theecologist.org/2017/may/09/natures-rights-new-paradigm-environmental-protection>
- Tosun, J., Scherer, U., Schaub, S., & Horn, H. (2020). Making Europe go from bottles to the tap: Political and societal attempts to induce behavioral change. *WIREs Water*, 7(3), e1435
- Urban, S., Hertting, N., Palm, K., & Åberg, M. (2025). The social perspectives of energy communities in EU policy and research - a scoping review. *Local Environment*, 1-16.
- Wang, X., Ghanem, D. A., Larkin, A., & McLachlan, C. (2020). How the meanings of 'home' influence energy-consuming practices in

domestic buildings. *Energy Efficiency*, 14(1), 1.  
Willhite, H. (2016). Energy consumption as cultural practice: implications for the theory and policy of sustainable energy use. In Strauss, S., Rupp, S., & Love, T. (Eds.), *Cultures of energy* (pp. 60-72). Routledge.

논문 투고일 : 2025. 07. 26

1 차 심사일 : 2025. 08. 12

게재 확정일 : 2025. 08. 20

## Micro-level Research Agenda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Climate Crisis Era

Seona Park<sup>1)</sup>

Hojae Ryu<sup>2)</sup>

<sup>1)</sup>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uangzhou)

<sup>2)</sup>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the necessity of multi-level effort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detailed discussions on how micro-level research approaches can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ty remain insufficient. This study presents an integrated perspective to overcome the fragmentation of existing research and establish the connection between carbon neutrality policy goals and micro-level research.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conducting a narrative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literature across adjacent fields including psychological science, communication studies,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sociology. The analysis revealed unique features of each academic field. Psychological science focused on individual internal factors, percep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Communication research addressed practical topics combined with media effects. Micro-level approaches in environmental policy showed major trends in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acceptance, large-scale perception surveys, and group-specific perception studies. As a result, the study defined the characteristics of micro-level research that can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ty by categorizing them into cognitive, behavioral, and political dimensions, and propos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dditionally, in the sense of complementing the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of psychological science research, we introduced social practice theory, which understands routine human behaviors as social practices. At a time when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is crucial for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expansion efforts of micro-level research are expected to play a role in explaining and narrowing the gap between carbon neutrality norms and behaviors.

*Key words* : carbon neutrality, climate communication, environmental policy, narrative literature review, social practice theory

부 록

1. 심리학계 논문 목록

순번	저자	연도	학술지	논문명	키워드
1	박상태, 이지우	2025	심리운동연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반한 자원재활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자원재활용교육, 환경보전지식, 환경보전태도, 효과성 분석
2	김예진, 박태희	2025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친환경 소구와 사용편의성이 친환경 제품의 품질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	친환경 제품, 친환경 소구, 사용편의성, 구매의도, 품질지각
3	김세현, 김현, 조연수, 정영주, 성용준	2025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친환경 소비 의도에 대한 부모 성별과 자녀 수의 상호작용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적 유창성과 기후 불안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 의도, 부모 성별, 자녀 수, 기후 불안, 순 인지적 유창성
4	안정은, 권연희	2025	인지발달 중재학회지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교육프로그램 개발	유아교사, 지속가능발전교육 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5	황연주, 황희숙, 김빛내	2025	인지발달 중재학회지	STEAM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분석: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STEAM (융합인재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예비유아교사
6	황연주, 황희숙, 김빛내	2024	인지발달 중재학회지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STEAM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지속가능발전교육(ESD), STEAM(융합인재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역량, 융합인재소양, 예비유아교사
7	조단비, 신하정, 김은호	2024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지각된 원재료 오염도가 업사이클링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 가격 공정성과 친환경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제품, 구매의도, 지각된 원재료 오염도, 가격 공정성, 친환경성, 노스텔지어, 혐오감
8	안대천, 김재영, 왕의니	2024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경기상황과 광고메시지의 조절 초점에 따른 친환경 제품 광고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심리적 변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 경기상황, 조절 초점, 환경관여도, 미래지향 시간관점, 광고태도, 구매의도
9	안대천, 김재영, 정재현, 왕의니	2023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소비자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유형화와 지속가능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소비,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소비의도, 구매행위, 시장세분화
10	이윤슬, 김은실	2023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피드백 및 회상이 친환경 소비 의도와 광고 메시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자기 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 정체성 정의 광고 메시지, 자아일치성, 자기완성 이론, 지각된 자기 완성, 보상적 자기 상징

1. 심리학계 논문 목록

(계속)

순번	저자	연도	학술지	논문명	키워드
11	이태준, 노환호, 이병관	2022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틱톡 챌린지(TikTok Challenge) 참여가 탄소 중립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틱톡 챌린지 태도와 정부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틱톡 챌린지, 탄소 중립 정책, 소셜 미디어 캠페인, 정부 신뢰, MZ 세대
12	김종흠	2012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친환경 행동 및 친환경 유기농산물 구매의도에 대한 도덕적 규범의 활성화 효과-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를 중심으로 -	도덕적 규범, 암묵적 태도, 외현적 태도, 친환경 행동, 친환경 제품태도
13	Lee, Diane Youngmi, 이홍표	2021	한국예술치료 학회지	재활용품 활용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재활용품 활용 집단미술치료, 3학년 아동, 창의성, 사회성
14	김종흠	2015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개인-집단주의 성향과 도덕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친환경 유기농산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격민감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개인-집단주의 성향, 도덕적 규범, 가격 민감성, 친환경 행동의도, 유기농 쌀 구매의도
15	신재욱, 신민철	2011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자아성향과 친환경심리 및 녹색소비자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자아성향, 친환경심리, 녹색소비자행동, 소비자의 지식
16	김종흠	2013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 가치지향성, 메시지 전달방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의 심각성, 가치지향성, 심리적 거리감, 친환경 행동의도
17	이근애, 전효정	2020	인지발달 중재학회지	영·유아 대상 지속가능발전 기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18	김종흠, 최승희	2020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규범과 통제소재가 개인의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비교	도덕적 규범, 사회적 규범, 내적통제, 외적통제, ST-IAT, 친환경 행동
19	이기영, 이진균, 입연수	2015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기후변화방지 캠페인을 위한 메시지 프레이밍의 전략적 사용: 이슈관여도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메시지 프레이밍, 이슈관여도, 기후변화방지 캠페인

2. 커뮤니케이션 학계 논문 목록

순번	저자	연도	학술지	논문명	키워드
1	곽경린, 김영욱	2025	한국방송학보	메시지 프레이밍이 플라스틱에 관한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및 생성감과 학습된 무기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프레이밍, 생성감, 학습된 무기력, 부정적 감정, 친환경 행동의도
2	진심의, 황지원	2025	광고연구	소비가치가 그린 자아정체성(Green Self-identity) 및 친환경 어플리케이션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그린위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각된 소비자 가치, 그린위상, 그린 자아정체성(Green Self-Identity), 그린마케팅, 지속가능성
3	김천수	2025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와 기후변화: <연합뉴스>의 기후변화 보도 분석	기후변화, 기후위기,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4	조연주	2025	한국언론정보학보	공영방송 KBS와 민영방송 SBS의 기후변화 보도 비교분석: 방글라데시 기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SBS, KBS, 기후변화, 방글라데시, 기후난민
5	함승경, 김영욱	2025	한국언론정보학보	기후변화 위험정보 탐색에 있어서 문화적 세계관의 영향	RISP, 기후변화, 문화적 세계관
6	정민화, 김가영, 정세훈	2025	한국소통학보	기후변화 관련 미디어 귀인이 공중의 책임 판단 및 정책 의견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귀인, 공중 책임 판단, 정책 의견, 기후변화 문제
7	이현승	2025	한국소통학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보도: 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차이 분석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파성, 텍스트 마이닝, 내용분석
8	손위수, 한미정	2025	한국광고홍보학보	기후변화 대응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위험 감소동기 모형을 중심으로	미디어 효과, 사회적 위험, 기후변화 대응행동, 관여도, 효능감
9	김정은, 박보형, 한미정	2024	한국광고홍보학보	친환경 행동에 관련한 온라인 액티비즘의 매개적 역할 탐구: 지구온난화에 관련한 인지적·정서적 요인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 환경죄책감, 온라인액티비즘, 탄소저감 행동
10	이정훈, 이종민	2024	광고연구	친환경자동차 구매행동에 미치는 목표프레임의 조절효과	친환경행동, 친환경자동차, 동기, 목표프레임, 계획된행동이론, 조절효과, 전기차
11	김민지, 부수현	2024	광고PR실학연구	개념적 유창성과 인지부하가 친환경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	친환경 소비, 처리 유창성, 개념적 유창성, 인지부하, 정보처리 효능감

2. 커뮤니케이션 학계 논문 목록

(계속 1)

순번	저자	연도	학술지	논문명	키워드
12	장혜연, 채윤정, 최의락, 조재희	2024	한국방송학보	미세 플라스틱 관련 환경정보 탐색과 처리가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정보 탐색처리모형(RISP)을 중심으로	미세 플라스틱, 위험정보탐색처리모형(RISP), 부정감정, 친환경 행동의도
13	이창은, 마혜현, 백혜진	2024	한국언론학보	미디어를 통한 환경정보 이용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능력의 역할	환경 관련 미디어 이용, 정보 불충분성, 휴리스틱-체계적 정보처리, 정보 수집능력, 친환경 행동
14	이정훈, 이종민	2024	한국광고홍보학보	친환경자동차 구매행동에 미치는 예측비용의 조절효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친환경행동, 친환경자동차, 예측비용, 계획된 행동이론, 조절효과
15	김수연, 설진선, 이용주	2024	한국언론학보	정말 한국의 Z세대 소비자는 일반 제품보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더 높을까?: 가격에 따른 소비가치 인식을 중심으로	국내 Z세대 소비자, 친환경 제품, 가격, 소비가치, 구매의도
16	황석, 이세진	2024	광고연구	친환경 광고의 소구유형에 따른 광고효과: 광고 회의주의와 환경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친환경 광고, 이타적 소구, 이기적 소구, 광고 회의주의, 환경관여도
17	이동후, 이설희	2024	한국언론정보학보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일상적 환경주의 경험에 관한 질적 고찰: 친환경 소비자 주체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 환경주의, 소비주의, 친환경 소비자 주체성, 친환경실천, 심층인터뷰
18	김인혜, 김연신, 백태현, 최영균	2024	광고학연구	한·미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 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수단-목적 사슬 및 토픽 모델링의 적용	친환경 제품 인식, 친환경 소비 행동, 문화간 비교, 수단-목적 사슬, 토픽 모델링
19	이혜선, 호규현	2024	한국언론학보	기후변화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 기후변화로 인한 감정과 대화 시도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청년, 기후 불안, 혼합연구방법, 환경커뮤니케이션
20	임인재, 황애리, 금희조	2024	한국언론학보	기후변화 인식 유형에 따른 메시지 전략 탐색: 한국인에 대한 6가지 미국인 유형의 적용과 확장	기후변화, 6가지 미국인 유형, 한국인 유형, 군집분석
21	이건혁, 안차수	2024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기후위기와 언론인 의식: 기후관련 연합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환경적 저인자, 기후위기 인식, 보도관행
22	이태준, 노환호, 이은희	2024	한국광고홍보학보	The Effect of Participating in A #CarbonNeutrality TikTok Challenge on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ssues: The Interaction Effect of Environmental Involvement and Trust in Government	TikTok challenge, Active learning, Climate action,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ssues, Social media intervention

2. 커뮤니케이션 학계 논문 목록

(계속 2)

순번	저자	연도	학술지	논문명	키워드
23	조은희	2024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기후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뉴스 회피 특성 연구	뉴스 회피, 뉴스 피로, 정책 관여, 정책 지식, 기후변화
24	박우승, 한승엽, 이현지, 조재희	2024	PR연구	EPPM 모델을 적용한 기후변화 예방행위의도에 관한 연구: 폭염 문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폭염, EPPM, 예방행위의도
25	임인재, 금희조	2024	방송통신연구	기후변화 뉴스 프레임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개별 감정과 위험 인식의 매개 경로 중심	기후변화, 뉴스 프레임, 정책 지지, 개별 감정, 위험 인식
26	전종우, 배경석	2024	한국소통학보	공익광고의 유용성이 기후 변화에 대한 공익광고 이원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공익광고, 자아 효능감, 공익광고 유용성, 기능적 태도, 쾌락적 태도, 기후변화 문제 참여의도
27	민병운	2023	미디어융합연구	지속가능한 소비자 행동에 대한 한일 세대 간 비교 연구: 문화 교차수렴 이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자 행동, 방종과 규제, 기술준비도 2.0, 문화 교차수렴 이론
28	이혜선, 조재희	2023	한국언론정보학보	온라인 환경교육의 경험적·분석적 정보와 상징적 접촉에 따른 자연과의 유대감과 친환경 행동	온라인 환경교육, 자연과의 유대감, 상징적 접촉, EVM, 환경 커뮤니케이션
29	임벽함, 이승조	2023	언론과학연구	플라스틱 남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메시지의 효과 발현에 호혜적/공감적 소구와 보편주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 남용, 친환경 메시지, 호혜적 소구, 공감적 소구, 보편주의 가치 성향
30	노환호, 이태준	2023	광고PR실학연구	소셜 미디어 캠페인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인식이 탄소중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탄소중립 정책 선호의 매개효과와 녹색 소비가치의 조절효과	소셜 미디어 캠페인, 환경문제 인식, 탄소중립 정책 선호, 녹색 소비 가치
31	신우열	2023	한국언론학보	언론 논리에 관한 기후위기	기후 저널리즘, 제도 논리, 언론 논리, 언론 관행, 기후위기
32	박지혜, 이유재	2022	서비스마케팅저널	친환경라벨이 역효과를 가져올 때: 쾌락제와 실용제에 대한 친환경라벨의 차별적 효과	친환경커뮤니케이션, 친환경라벨, 친환경제품, 쾌락제, 실용제
33	류찌하오, 조영, 한미정	2023	한국광고홍보학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탄소중립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정책, 정책리터러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지각된 정책효능감,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의도

2. 커뮤니케이션 학계 논문 목록

(계속 3)

순번	저자	연도	학술지	논문명	키워드
34	홍성철	2023	한국소통학보	가짜뉴스 이용자의 뉴스정향욕구 검증: 기후변화 가짜뉴스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뉴스정향욕구, 뉴스공유의지, 관련성, 불확실성
35	김가람, 조활원, 조수영	2023	한국광고홍보학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육류 소비 저감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준거점 설정과 비교성 네티지의 활용	육류 소비 저감, 기후 위기, 준거점 설정 효과, 비교성 네티지, 심리적 저항
36	이동환, 서문니, 전종우	2023	광고PR실학연구	개인 특성과 가상 인간에 대한 감정 반응이 기후변화 광고태도와 캠페인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 사고경향, 자극추구성향, 관여도, 친숙도, 감정 반응
37	박혜영	2023	광고PR실학연구	공중의 기후변화 완화 행동 연구: 자아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지식/집단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기후변화, 완화 행동, 위험 인식, 자아효능감, 집단효능감, 지식
38	정지영	2023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국내 기후위기 언론 보도에 대한 탐색적 고찰: 미디어 사회적 책임에서부터 어카운터빌리티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언론보도, 사회적 책임, 어카운터빌리티, 의제 설정, 프레임
39	전진아, 정정한	2022	광고학연구	친환경 제품 유형과 메시지 프레임 적합성이 제품 및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제품 유형, 메시지 프레임, 처리유창성, 광고 태도, 제품 태도
40	이혜선, 나은영	2022	한국방송학보	온라인 환경교육이 20대의 자연과의 유대감과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 지식과 자연과의 상징적 접촉을 중심으로	온라인 환경교육, 환경 지식, 상징적 접촉, 자연과의 유대감, 환경커뮤니케이션
41	주남, 호규현, 조재희	2022	한국언론정보학보	환경 관련 대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채널별 정보 노출이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관여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환경 커뮤니케이션, 환경 정보 노출, 환경관여도, 친환경행동의도, 구조방정식
42	임연수, 이진균, 이기영	2021	광고PR실학연구	유튜브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방향 모색	공공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연결망분석, 토픽모델링
43	박은영	2021	서비스마케팅저널	광고 메시지 소구 유형이 친환경 제품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제품, 친환경 의식수준, 광고 메시지 소구유형, 구매행동

2. 커뮤니케이션 학계 논문 목록

(계속 4)

순번	저자	연도	학술지	논문명	키워드
44	소현진	2021	광고연구	친환경 소비 행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의식, 지각된 소비자 효율성과 개인적 규범의 관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 행동, 환경의식, 지각된 소비자 효율성, 개인적 규범, 규범활성화 모델
45	김주환, 한미정	2021	PR연구	지각된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이 친환경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기된 죄책감을 통한 EPPM의 확장 가능성	1회용품 이용, 위협 소구, 지각된 효능감, 예기된 죄책감, 책임귀인
46	손위수, 한미정	2022	한국광고홍보학보	탄소중립 정책 공유의도와 정책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통합기술수용모형과 가치기반모형을 활용한 탐색적 연구	탄소중립정책, 통합기술수용모형, 가치기반모형, 정책수용자, 정책참여
47	임연수	2021	한국광고홍보학보	유튜브 매개 공공커뮤니케이션 모형과 방향성 모색: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유튜브, 공공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 연결망 분석
48	박혜영	2021	광고PR실학연구	기후변화 예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지식 변인을 추가한 계획된 행동 이론 확장 모델 적용	기후변화, 예방 행동, 계획된 행동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 확장 모델
49	김수진, 김영옥	2019	한국언론학보	문화적 편향이 기후변화 정책 수용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위험인식, 감정, 효능감의 매개 효과 중심 분석	문화적 편향, 기후변화 위협인식, 정책수용, 감정, 효능감
50	함승경, 김혜정, 김영옥	2020	한국언론학보	해석수준과 대응수준이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와 미래/즉각적 결과고려의 조절효과 중심	해석수준, 대응수준, 심리적 거리, 미래/즉각적 결과고려,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
51	정현주, 유영석	2020	한국소통학보	퍼블릭 인게이지먼트의 효과를 고려한 기후변화 소통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기후변화,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기후변화소통, PEP/IS
52	임인재, 김영옥	2019	한국언론정보학보	기후변화 보도 유형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연구: 감정의 인지적 평가 이론 중심 분석	기후변화, 보도유형, 인지적 평가, 부정적감정, 예방행동 의도
53	한빛나라, 김혜정, 김영옥	2020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인식 지형 도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협인식 비교	기후변화, 에너지, 위협인식, 해석수준이론, 심리적거리감